

새 활로 모색하는 젊은 소설의 풍경

이순원 이인화 박혜강의 장편을 중심으로

우찬제

문학평론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설 광고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썩 괜찮은 소설을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듯한 광고 카피의 유혹에 이끌려 소설을 사서 읽다보면 금방 속았다는 느낌을 갖기가 다반사라는 독자들의 불멘 목소리가 이제는 거의 만성적인 것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해서 출판광고의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문제삼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더니, 요즘 소설계가 그렇지 싶다. 확실히 소설은 많이 생산되는데, 좋은 소설은 드물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다.

풍요속의 빈곤 타개하는 새로운 모색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소설은 매우 까다로운 생산조건과 공정을 거쳐야 가능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고난도 수공업 제품인 셈이다. 따라서 그 생산공정에서 생산자인 작가가 사소한 실수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자체가 대단히 파행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실에서 문제적 징후를 발견하고, 읽고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작가 자신만의 구상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여 보여주기까지 실로 수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변화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진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함정들이 더욱 요상하게 작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변화의 속도는 작가들의 현실외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제일의 요인이다. (90년대 들어 현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는 새삼 강조하기도 쑥스러운 노릇이다. 페레스트로이카호 태풍에 의한 세계사적 지각변동을 비롯하여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들이 거의 파시스트적인 가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급속한 변화의 속도는 일단 작가들의 정보처리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능하다. 얼핏 보기에는 변화된만큼 정보량이 늘어나므로 오히려 소설적 가능성의 세계가 그만큼 광활하게 확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성의 세계와 실재는 다른 것이다. 정보량의 증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보로부터의 소외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모르는 정보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

렇게 무지가 급증하면 현실을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준거들을 잃게 되기도 한다. 그러면 판단 중지 현상의 증대는 자연스런 결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다. 현실을 판단하기가 곤란해졌으므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려워졌다. 정보로부터의 소외가 총체성의 확보를 곤란케 한다면, 미래예측 불가능성은 확실히 전망 확보를 어렵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이 과연 문제적인 이야기 거리인지 판별하기도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만약 어떤 이야기가 상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를 적절히 연결지어 조화로운 구성을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야기가 없거나 단말마적으로 끊어지는 이야기만이 떠돌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작가들이 수공업적으로 소설을 생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산의 제반 여건으로부터 근원적으로 다가오는 外化의 압력을 넘어서서 새로운 인식론과 해석학을 발견하고,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진지한 열정으로 무장된 노동의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앞서 풍요속의 빈곤 운운했던 터이다. 이때 변화의 속도에 따른 정보처리능력의 민완성을 계산해 넣으면, 아무래도 외형적으로는 발 빠른 젊은 작가들의 감수성과 인식론이 당대의 새로운 징후를 포착하고 형상화하는데 보다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문학적 진정성의 깊이에 내려가는 도정에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소설 장르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길어올리려는 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구효서, 김형현, 김하기, 김한수, 마희정, 박상우, 박혜강, 방현석, 심상대, 안재성, 엄창석, 이순원, 이인화, 정화진, 주인석, 최시한, 최윤, 하일지, 하재봉 등이 각개약진격으로 벌이고 있는 새로운 모색들은 풍요 속의 빈곤현상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젊은 풍경들이라 할 수 있다.

타락한 풍경에의 기억반응, 이순원

젊은 가능성의 하나는, 부항한 욕망으로 출렁이고 있는 타락한 풍경을 순도높게 혹은 위악적으로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기억반응으로서의 비판적 성찰을 유도하는 경향으로 나타

아직 문학적 진정성의 깊이로

내려가는 도정에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소설장르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길어올리려는 젊은

작가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들이 각개약진격으로 벌이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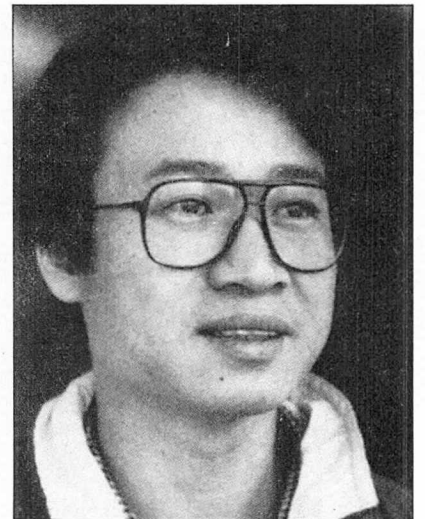
새로운 모색들은 풍요 속의 빈곤현상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젊은

풍경들이라 할 수 있다.

난다. 신예작가 이순원의 「그곳엔 비상이가 없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집요한 산문적 탐사를 보여준 신작장편이다. 하재봉의 「콜렉트 콜」도 같은 경우이다. 이때 이야기는 주로 현실 공간에 대한 다양한 풍경첩으로 나타나기 쉬운데, 이는 이야기의 시간적 선적 전개가 예전과 같이 못한 상황의 반영임과 동시에 장면 자체를 보여주는(showing) 전시효과를 통해서 작가가 직접 말하지(telling) 않으면서도 어떤 중요한 비판적 메시지의 흔적을 말하려는 의도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곳엔 비상이가 없다」(중앙일보사)에서 이순원은 시인 유하가 「부람부는 날이면」가야 했던 압구정동을 매우 위악적으로 해부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압구정동을 “종게 말하면 이 땅 신흥 자본 상류층의 집단의 대명사요 넘치는 상징이지만, 체면 가릴것없이 기본대로 부르면 이땅 졸부들의 끝없이 욕망과 타락의 전시장, 아니 똥통같이 왜곡된 한국 자본주의가 미덕(?)처럼 내세우는 환락의 별칭적 대명사”로 규정한다. 이런 공간인 압구정동을 무대로 하여 소설 속의 인물들은 마지막 비상구조차 막혀버린 부패와 타락 속에서 일대 활극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꾼인 40대 “까만 가죽치마” 여인, 성도착증의 노파나 게이, 황음에 절어 있는 재벌 회사의 2세 남해성 부사장이나 양재동 빌라의 여대생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모조리 극단적으로 타락한 돈·성의 유희에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탕진시킬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해악만 끼치는, 작가의 표현대로라면, “자본주의의 끝간 데 모



이순원씨.

를 부패와 타락이 생산해 낸 쓰레기”들이다. 작가는 이들을 압구정동 거리에 풀어놓아 마음껏 타락한 욕망의 활보를 하게 한 연후에 차례로 테러를 가해 살해하는 것으로 스토리를 이끌고 있다.

열없지는 테러리스트를 동원해 그들을 처리하는 것은 부패와 타락으로 점철된 현실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경고를 의미하는 작가의 식의 소산이다. 압구정동을 포스트모던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제재로 사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직접 대결하면서 문제의 증후를 명확히 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결별한 채 소돔과 고모라로 방향을 잘못 든 타락한 후기자본주의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요, 도전이기도 하다. 물론 작가는 비판과 경고의 표시로써 “그곳엔 비상이가 없다”고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현대계에선 그 누구에게도 쉽게 풀 수 없는 블랙홀 같은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리라.

출구없는, 전망없는 시대의 풍경을 이순원은 사실적인 세필로 보여주는 데 일단 성공하고 있다. 그 사실적 풍경을 복합적인 관념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그는 여백으로 독자들에게 남겨놓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예의 고난도 해석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이순원의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장면 사이사이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뭇거리면서 고민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이인화는 매우 치열한 관념의



이인화씨.

열정을 작품 전반에 드러낸다. 관념의 열정을 통해 보다 직접성의 형식인 지식인 소설의 90년대적 영역을 열어제치고자 한 그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세계사)는 젊은 가능성의 두번째에 속한다. 이인화는 실재와 가상이 얽히고 설켜고 있어 정상적인 이야기의 전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아가 전망을 상실한 채 약령에 들려 신음하고 있는 시대적인 징후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부정성의 철학으로 무장된 그의 이야기는 거침없다. 심지어는 매우 독설적이기조차 하여서 때때로 혀를 내두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식인소설의 90년대적 영역, 이인화

「내가 누구인지...」는 여러 인물들에 의한 다중적 1인칭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예술을 향한 지순한 열정(소설 쓰기)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주인공 은우, 그를 이해하고자 하나 끝내 자기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떠나가는 애인(산부인과 의사) 윤희, 민주주의에 절망하여 파시즘에 경도되어 있는 문학평론가 박문도, 학생운동을 하다가 전선을 이탈한 채 방황하는 정임, 지하운동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를 털고 쫓겨다니는 노동해방운동가 규진, 세속적인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전문의 성규 등등의 대부분 젊은 지식인(혹은 지식인 출신)들이 각기 자기 정념을 매우 감각적이고 빠르고 비유적인 문체에 실어 폭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인 자기 정념과 관념으



박혜강씨.

로 출렁이며 또 그 출렁임으로 인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는 방황하는 젊음의 초상들로 나타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한 세계가 죽고 또 한 세계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다. 길고 좁은 길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마구 흔들리어 돌들이 춤을 추는 것 같더니 그것이 바로 나왔다. 내가 마구 흔들린다.”

확실히 이인화는 지난 80년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90년대식 발생법과 인식론을 모색하고 있다. 80년대식-20세기식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넘어서서, 90년대식-21세기식 인문주의를 절대적으로 갈망한다. 현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여 있는 존재를 무의미로 치환시키고 그것을 재차 부정하여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내가 없는 나를 부정하면서 나를 찾아나서는 그의 인식도정은 험난하고 위협스럽게 짝이 없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무엇)이고자 하는가”라는 다양하고 치열한 질문법을 통해서 혼돈 속의 질서, 환상 속의 실재를 찾고자 하는 그의 몸부림은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 그의 삶과 소설의 의미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다.

“나는 지금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부정해줄 작품을 바라고 있다. 더이상 환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갈망, 우리의 덧없는 삶이 지나는 기만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갈망이 나의 글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조이다. 글에서 미망의 거울을 깨뜨리고 모든 것의 배후에 존재하는 이념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

다. 나는 나의 모든 지식과 의지를 걸고 인생의 무의미와 맞서는 그런 ‘나’이어야 한다.”

소설사적으로는 최인훈, 이청준, 이문열로 이어져온 관념소설의 계보에 속하지만, 앞선 세대에 비해 훨씬 위험한 비탈길 위에 이인화는 가파르게 서 있다. 패배가 명확해 보이는 싸움터에 온몸을 던져 피투성이가 되기를 자처한 그의 낭만적 열정은 한국 민주주의·인문주의 반세기의 위기를 정직하게 반영한 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는 자신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과감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새롭고도 중요한 가능성의 지대를 열어놓았다. 이인화는 「내가 누구인지...」에서 실패했으므로(실패를 통한 반역으로서) 성공했다.

민중문학의 고전적 대의, 박혜강

앞의 돌과는 달리 가능성의 세번째는 기존의 신념을 계속 견지하는 데서 나타난다. 세상이 변하고 그 변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혹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믿음은 일군의 젊은 작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전적인 대의를 계속 지켜나가게 한다. 방현석이 「또 하나의 선택」에서 시사한 바 ‘그래도 오직 이 한 길을’로 요약될 민족·민중문학적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현실 사회주의권이 위기에 봉착했다 하더라도, 또 그것과 관련하여 국내 변혁운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모순과 자본모순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로 남아 있으며, 따라서 이것의 해소를 위한 일체의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순정한 문학혼이 이 세번째의 길을 지속시키고 있다. 반핵장편소설 「검은 노을」로 제1회 실천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관심을 끌었던 작가 박혜강의 신작 장편 「다시 불러보는 그대 이름」(살림터)은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은 탄광지대를 무대로 하여 광부들의 일상적·운동적 삶을 포착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검은현실’을 ‘밝은 현실’로 바뀌어나가고자 애쓰고 있는가를 사회변혁적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다. 학생운동 출신인 동욱과 탄광지대 출신인 노불은 함께 광부생활을 하면서 탄광촌의 어두운 현실을 절감한다. 열악한 작업환경, 부당하고, 어용노조, 구사대 횡포 등 온갖 구조적인 모순이 횡행하고 있는 검은 현실을 변혁시

키기 위해 그들은 일단 동지들을 규합하고 민주노조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처음엔 부정선거에 의해서 실패하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단합하여 마침내 민주노조 결성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쟁취해 낸다. 이로 인해 부풀어가던 희망도 잠시, 회사측은 폐업을 선포해 버린다. 파업과 폐업의 대응역학이 매우 박진감 있게 그려진다. 폐업의 부당성에 맞서 광부들은 보다 가열찬 투쟁의 대오를 형성한다.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검은 현실’을 환하게 밝히기 위한 햇불을 높이 치켜드는 것으로 소설의 대단원은 마무리된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햇불의 명암이 일렁거리고 있었다. 그 얼굴마다엔 해방의 날을 열고야 말겠다는 맹돌 같은 의지가 춤추며 박혀 있었다. 누군가가 힘찬 함성을 질렀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함성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멀리멀리 퍼져나갔다.”

마지막 문장이 매우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노동해방의 물결의 확산에 대한 갈망의 표시이며, 신념의 재확인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자기검증을 통한 새로운 전략에 토대를 둔 것이라면 더 희망차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을 터이다.

가능성은 그밖에도 여러가지로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가령 최시한의 기억의 중층성과 민담적 원근법이거나, 구효서의 형식 실험, 주인석의 지식인적 자기성찰이나 상황인식, 하일지의 광기의 늑, 함정임의 페미니즘 등등 다채로운 광각을 통해 도전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90년대 젊은 작가들의 치열한 소설적 도전이 이 혼란스런 시대를 슬기롭게 밝혀나갈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